

염색,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 선포

한국염색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친환경·디지털화 추진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해수)가 9월9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염색산업 50년사> 발간과 함께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1954년 9월20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04년 창립 50주년을 맞았으며, 기념식에는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박성철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 회장 등 관련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염색업협동조합은 “염색산업은 섬유산업의 꽃으로 불리우고 있듯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짧은 산업화 기간동안 세계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기념식에서는 염색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삼광염직 안상규 대표이사와 경은산업 이문용 전무, 가나섬유 조영관 전무가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삼창가공 엄간직 대표이사, 부용화섬 조현호 대표이사, 대구염색공단 서영창 상무가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은 축사를 통해 반세기 동안 염색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염색업계 대표 및 종사자들의 공을 높이 치하하고, 정부에서 섬유산업의 중추 산업으로 산업용 섬유, 패션과 함께 염색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염색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산업화, 디지털 날염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10>